

〈정당별 의석〉 자유한국당 37, 더불어민주당 6, 무소속 1명이다.

의회운영 2017년 회기운영 일수는 총 9회 126일로 정례회가 2회 53일간, 임시회가 7회 73일간 개최됐다.

총 의안처리 건수는 230건으로 2016년(255건) 대비 9.8% 감소했다. 조례안 132건, 예·결산안 15건, 동의·승인안 33건, 건의·결의안 20건, 규칙·기타안 30건을 승인·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993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해 755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306건을 시정·처리 요구했다. 알펜시아 시설 무상사용 관련 실질적인 대책 마련, 동계올림픽 불 조성 및 올림픽 이후 성장방안 마련, 엘엘개발 감사 및 레고랜드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한 설정, 도내 학력 향상 방안 등 도의 주요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5분 자유발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총 25명의 의원이 58회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3회(3월·6월·10월) 8일간 27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150건의 질문을 했다. 도정에 관련된 사항이 111건, 교육행정에 관련된 사항이 39이었다.

서면질문 처리 247회에 걸쳐 총 1천138건의 서면질문을 했다. 이중 도정과 관련한 사항이 771건, 교육행정과 관련한 사항이 367건이었다.

특별위원회별 활동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접경지역에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규제완화, 관광자원 및 주민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는 폐광지역에 경제자립형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제반 대책 강구,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경기장 건설 및 교통망 확충을 지원하고 대회 불 조성을 위한 도와의 간담회, 타 시도 홍보, 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등을 전개했다.

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해 추진하였으며,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색삭도특별위원회는 오색삭도 사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오색삭도 설치사업 촉구 결의안 및 사업관철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비대위 상경집회에도 동참하는 등 오색삭도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도의회 3대 의정방침의 실천 '강원도민의 행복, 강한 의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을 편안하게 모시는 「섬기는 의회」,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일하는 의회」, 도민소통을 위해 다가가는 「가까운 의회」를 3대 의정 목표로 설정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운영, 맞춤형 의정활동 추진 등으로 도민 밀착형 생활의정 실천 및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道花 : 백목련 **道鳥** : 까치
道木 : 느티나무 **캐릭터** : 고드미, 바르미
도청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도지사 : 이시종(李始鍾)

개 관

연혁 충청북도는 서북으로 차령산맥, 동남으로 소백산맥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영토였다. 삼국시대에 중부는 백제, 남부는 신라, 북부는 고구려가 점유해 삼국 간 세력다툼의 각축장이었다.

고려 성종 때(995년) 중원도였다가 예종 원년(1106년)에 처음 충청도로 불렸다. 명종 2년(1171년)에 양광도로 바뀌었다가 공민왕 5년(1356년)에 다시 충청도로 환원됐다. 조선 태조 때(1395년) 충주·청주·공주·홍주 소속령이던 군현을 합쳐 충청도를 만들고 충주에 관찰사를 두었다. 고종 33년(1896년) 8월 4일 실시된 13도제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치돼 충주에 도청을 두었다가 1908년 청주로 이전했다.

1946년 청주읍이 부로 승격돼 1부 10군 3읍이 됐다. 1949년 청주부가 시로 바뀌었다. 1956년 충주읍이, 1980년 체천읍이 시로 승격됐다. 1990년 출장소가 설치됐던 증평이 2003년 독립자치단체인 증평군으로 승격됐다. 1995년에 청주시 동부출장소가 상당구로, 서부출장소가 흥덕구로 승격됐다.

2012년 6월 27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자율에 따라 통합을 결정해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로 출범했다. 2012년 7월 1일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문곡리·행산리·산수리·갈산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됐고,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는 남이면 부용외천리

충청북도 면적·가구·인구

(2017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세대)	인구(명)
합 계	7,407.31	692,140	1,594,432
청 주 시	940.28	346,000	835,590
충 주 시	983.56	90,246	208,316
제 천 시	883.45	61,949	136,432
보 은 군	584.25	16,501	34,053
옥 천 군	537.11	23,290	51,766
영 동 군	845.72	24,132	50,240
증 평 군	81.83	16,694	37,783
진 천 군	407.26	32,898	73,677
괴 산 군	842.44	20,577	39,054
음 성 군	520.30	45,069	97,306
단 양 군	781.11	14,784	30,215

*인구 : 외국인 제외

로 변경 후 청주시에 편입됐다. 통합 청주시는 당초 행정구역이 2개 구(상당구, 흥덕구)에서 4개 구(상당구 5면 8동, 서원구 2면 9동, 흥덕구 1읍 2면 8동, 청원구 2읍 1면 5동)로 개편됐다.

면적·행정구역·인구 바다와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로 총면적은 7천407.31km²이다. 행정구역은 11개 시·군, 153개 읍·면·동, 4천742개 통·리, 1만9천17개 반이 있다.

인구는 2017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해 163만1천88명이다. 2016년도에 비해 3천818명이 증가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4,180,989	3,715,186	465,803
지방세	1,032,114	1,032,114	-
보통세	839,999	839,999	-
취득세	549,758	549,758	-
등록면허세	46,628	46,628	-
지방소비세	243,613	243,613	-
목적세	186,115	186,115	-
지역자원시설세	31,115	31,115	-
지방교육세	155,000	155,000	-
2017년도 수입	6,000	6,000	-
세외수입	66,813	46,766	20,047
경상적세외수입	18,299	17,867	432
임시적세외수입	48,514	28,899	19,615
지방교부세	526,500	514,000	12,500
보조금	2,027,364	1,837,431	189,933
지방채	-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28,198	284,875	243,323
보전수입 등	158,117	124,500	33,617
내부거래	370,081	160,375	209,706

2018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분 야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4,180,989	3,715,186	465,803
일반 공공행정	469,378	469,378	-
공공질서 및 안전	362,179	312,233	49,946
교육	222,747	222,747	-
문화 및 관광	139,743	139,743	-
환경보호	196,595	196,595	-
사회복지	1,560,363	1,312,825	247,538
보건	66,807	66,807	-
농림해양수산	433,524	420,969	12,555
산업·중소기업	99,510	99,510	-
수송 및 교통	151,638	142,965	8,673
국토 및 지역개발	151,839	119,421	32,418
예비비	24,646	24,646	-
기타	302,020	187,347	114,673

재 정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4조1천809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7천151억원, 특별회계 4천658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지방세 1조321억원, 세외수입 467억원, 지방교부세 5천140억원, 보조금 1조8천37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천848억원이다.

중점 추진사업

6대 신성장산업 육성, '4% 총복경제' 달성 바이오와 화장품 미용산업 모두 생산규모는 전국 2위, 바이오인력현황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오송첨단복합단지 내 오송임상시험센터의 건립·운영자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공모에 착수했다. 첨단동물 모델평가동 건물 등 900억원 규모의 바이오 인프라 조성 사업을 유치했다.

태양광산업부문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업체인 한화큐셀 진천 2공장을 준공했고 R&D(연구·개발) 기관들과 협력업체를 유치했다.

2017년 수출액은 애초 목표인 185억 달러를 넘어 도정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6년 수출액 160억400만 달러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무역수지는 135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고 2009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8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2017년 12월 기준 투자유치는 민선6기 목표액 40조원을 초과 달성해 목표액을 4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속의 충북' 비상의 한해 '2017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205개 기업, 1천238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성과를 거뒀고 중부권 최대 규모인 충북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를 건립했다.

총복경제의 대동맥 SOC 확충 담보 상태였던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정부예산 20억원이 확보돼 2017년 12월 말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충청을 하나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2024년까지 7천200억원을 투자해 청주~음성~충주~제천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체 4개 공구 중 1공구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을 2017년 8월 고시했고 2018년 1월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2017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 건설 사업과 중앙선(제천~원주) 복선전철 사업도 목표 기간 내 완공에 힘을 쏟고 있다. 오송역 이용객은 KTX와 함께 SRT 개통으로 658만 명을 돌파했다.

청년 종합대책 마련 및 균형복지 정착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 청년희망센터 및 청년광장 운영 등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산적일자리사업은 2017년까지 9만7천여 명의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독거·치매·거동불편 노인을 보살피기 위한 '9988행복지킴이' 사업에 2만791명, 오지마을 경로당을 찾아 노인의 여가

생활 활성화와 건강관리를 돕는 '9988행복나누미' 사업에 230 명이 활동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통해 51개 기업에서 7천 명의 노인을 신규 고용해 충북형 노인복지 모델을 구축했다.

문화·관광·체육 인프라와 콘텐츠 확충 5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코리아랩 공모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포함해 총 115억을 투입해 충북콘텐츠코리아랩을 조성한다.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 개발에 힘쓴 결과 2016년 10월 영동군에 문을 연 레인보우 작은영화관에 2017년 현재까지 9만3천 명(영동군민 5만 명)이 찾았다. 제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보은 세조길 조성을 완료하고 진천군 백곡~초평호권 관광 네트워크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충북체육의 역사를 다시 쓴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13년 만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개최했다. 충북의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에 따라 전국체전에 앞서 개최한 장애인체전에서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뒀다.

전국체전에서는 충북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체전을 위해 경기장 2개(충주중합운동장, 청주스퀘어경기장)를 신설했고, 국제 규격에 맞게 35개의 경기장을 개·보수했다.

무예마스터십의 본산 2016년 처음 개최한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국제체육행사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 '무예 올림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9년에 열릴 2회 대회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전통 무예의 전승과 후진 양성을 통한 무예 부흥을 위해 11월 치러진 제1회 진천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에 33개국 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365일 안전충북 기틀 확립,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소통 충북소방본부는 7월 최근 5년 간 빅데이터를 분석해 '충북 심정지 환자 맞춤형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심정지 예방과 응급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 2016년 착공한 단양소방서를 완공했다. 맞춤형 소방안전 119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악인 명구조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남·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을 개최해 도내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도정정책자문단을 활성화하고 도민배심원제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산업

경제활동 인구 2016년 12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 137만7천 명 가운데 61.8%인 83만 9천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82만4천 명이 취업자로 취업률(OECD 기준 15~64세)은 68.4%이다. 실업률은 1.8%로 전국 평균 실업률 3.3%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 취업인구는 농림어업 6만9천 명, 광공업 17만1천 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58만 4천 명이다.

기업·투자유치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투자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산업단지 지

정 절차 간소화 등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노력해 2017년 866개 기업, 7조6천202억원을 유치했다.

농업 2016년 말 기준(2017년 4월 발표) 농가 수는 7만4천 292가구로 도내 전체 68만960가구의 10.9%이다. 경지 면적은 4만4천ha, 밭 6만5천ha이며 가구당 경지면적은 1.47ha로 전국 평균 1.54ha보다 적다.

축산업 2017년 말 기준 한·육우 21만6천717마리, 젖소 2만 1천369마리, 돼지 63만2천262마리, 닭 1천266만1천968마리, 오리 60만1천9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광업 2017년 10월 말 기준 금속광산 7개, 비금속광산 79개로 총 86개이며 608명이 종사하고 있다. 광물 생산실적은 납석 6만4천(전국비중 17.5%), 장석 1만(전국비중 1.7%), 석회석 2천97만(전국비중 25.9%)이다.

사회

주택 주택 수는 총 66만9천423호로 주택보급률은 111.2%에 이른다. 주거 형태별로는 단독주택 31만7천86호, 아파트 30만 8천352호, 연립주택 1만5천975호, 다세대주택 1만8천382호, 기타 9천628호이다.

교통 2017년 말 기준 등록차량은 78만7천188대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9만7천951대, 승합차 3만1천667대, 화물차 15만3천878대, 특수차 3천692대이다.

정보통신 2017년 말 기준 주요 통신망 시설로 청주~서울 인터넷 백본망 10G(GIGA bps) 46회선과 2.5G 2회선, 청주~시·군 10G 12회선과 20G 2회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재래시장, 복지시설, 보건진료소 등 478개소에 공공 WiFi 망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2017년 말까지 11개 시·군 1천215개 마을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했다.

보건·위생 2017년 말 기준 종합병원 12곳, 일반병원 39곳, 한방병원 6곳, 치과병원 3곳, 요양·정신병원 49곳, 의원 844곳, 치과의원 405곳, 한의원 388곳, 부속의원 9곳, 조산원 1곳, 보건소 14개소, 보건지소 96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보건진료소 158개, 약국 646곳, 의약품도매상 87곳, 약업사 20곳, 한약업사 62곳, 매약상 6곳이 있다.

문화

문화재 2017년 말 기준 국가지정문화재로 국보 12점, 보물 89점, 사적 19곳, 천연기념물 23점, 명승지 10곳, 민속문화재 21점, 중요무형문화재 3점, 등록문화재 28점을 보유하고 있다. 도 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307점, 무형문화재 27점, 기념물 133점, 민속문화재 20점, 문화재 자료 88점이 있다.

문화예술행사 충북예술제, 충북민속예술제, 청주예술제, 충주 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 제천 의병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보은 오장환문학제, 옥천 지용제, 영동 난계국악축제, 증평 인삼골축제, 진천 생거진천문화축제, 괴산 예술제, 음성 설성문화제, 단양 온달문화축제 등이 있다.

의회활동

원 구성

〈의 장〉 김양희

〈부의장〉 엄재창, 김인수

〈정당별 의석〉 자유한국당 17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3명이 있다.

의정 활동 2017년 6회의 임시회와 2회의 정례회 등 총 8회 129일간에 걸쳐 도의회를 운영했다. 회기 중에는 도정보고 청취 3회, 대집행부질문 4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예산·건의안 등 227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연찬회 6회, 현지 점검 66회 등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건의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보은·진천·증평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및 수재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건의안, 북한 6차 핵실험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 도로보수원 손직 인정 촉구 건의안,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안 등 9건의 대정부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안,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재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재난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017년 11월 9~22일 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민간위탁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87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고, 242건에 대해서는 건의 및 촉구를 했다.

에 거점을 마련한 뒤 점차 남하해 옛 마한지역을 통일하고 이 고장을 중심으로 백제를 형성했다. 그 후 백제, 고구려, 신라가 공존하다 신라가 당(唐)과 힘을 합쳐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뒤 이곳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웅주라 칭했다.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936년 고려에 통합된 뒤 하남도라 불리다 공민왕 5년에 충청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선 인조 때는 공청도, 정조 원년에는 홍충도로 불리다 순조 34년(1834년) 다시 충청도로 환원됐다. 고종 33년(1896년) 충청남도와 북도로 나뉘었다.

1932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졌다. 1935년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됐고 정부의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1949년 8월 15일 대전시로 개칭돼 1시 14군이 됐다.

1963년 천안읍이 시로, 당진면과 대천면이 읍으로 승격됐다. 1973년 신탄진·유성·삽교·합덕·태안·성환 등 6개 면이 읍으로 승격됐다. 1983년 대덕군, 유성읍, 회덕읍 일원과 구즉면, 진잠면, 탄동면 일부가 대전시로, 보령군 오천면 삽시도리 일부가 서산군 안면읍으로, 서산군 고북면 대사리와 홍성군 결성면 외리가 홍성군 갈산면으로, 천원군 풍서면 구룡리가 천안시로 편입됐다. 1986년 공주, 대천, 온양읍이 시로 승격되고 보령군 미산면 성주출장소가 성주면으로, 안면읍 고남출장소가 고남면으로 각각 승격됐다.

1987년 1월 1일 대전시와 대덕군이 대전직할시로 분리됐고, 서산군 서산읍이 시로 승격됐다. 1989년 1월 1일 서산군 내의 태안읍,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이 75년 만에 복군된 태안군에 편입됐다. 1990년 2월 27일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인근의 논산군 두마면 일원에 계룡출장소가 신설됐다. 같은 해 4월 1일 아산군 염치면이 염치읍으로 승격됐으며 12월 31일 천원군이 천안군으로 개칭됐다. 1991년 11월 30일 대산면이 대산읍으로 승격됐다.

1995년 1월 1일 공주시·군이 공주시로, 대천시와 보령군이 보령시로,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서산시·군이 서산시로 각각 통합 개칭됐다. 같은 해 3월 1일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를

충청남도 면적·가구·인구

(2017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세대)	인구(명)
합 계	8,227.44	923,373	2,116,624
천안시	636.07	263,434	631,531
공주시	864.19	49,393	108,432
보령시	573.90	47,407	103,198
아산시	542.62	129,188	311,453
서산시	741.30	72,469	171,678
논산시	555.18	56,679	122,240
계룡시	60.72	15,647	43,967
당진시	704.43	74,460	167,293
금산군	577.22	25,440	53,894
부여군	624.53	32,999	69,086
서천군	365.71	26,544	55,175
청양군	479.12	16,147	32,837
홍성군	443.99	44,833	101,570
예산군	542.66	37,489	80,338
태안군	515.80	31,244	63,932



道花 : 국화 道鳥 : 원앙
 道木 : 능수버들 캐릭터 : 충청이와 충나미
 도청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도지사 권한대행 : 남궁 영(南宮 英)



개관

연혁 충청남도는 삼한시대 마한의 북방경계 지역이었다. 마한의 중심국으로 정치 주도권을 쥐었던 월지국이 지금의 천안에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18년 북부여 온조가 남으로 내려와 충청남도 동북부